

빠른 패스로 '허리' 압박하고 '뒷공간' 노려라



“양보 하지시” 스위스가 토고를 2-0으로 물리침에 따라 한국의 스위스전 승리가 독일 월드컵 16강 해법으로 떠오른 가운데 20일 레버쿠젠바이아레나구장에서 열린 회복훈련에서 김두현과 송종국이 불을 다 타고 있다. /연합뉴스

■ 태극전사, 스위스전 필승카드는

스위스 빈틈은 측면과 포백 뒷공간
땅볼 스루패스 활용 수비 허점 공략

“강한 압박과 빠른 패스로 수비 뒷공간을 노려라”
월드컵 2회 연속 16강 진출 희망을 부풀리고 있는 한국이 오는 24일 새벽 ‘알프스 전사’ 스위스 대표팀과 2006 독일월드컵축구 조별리그 G조 최종전을 치른다.
지난 19일 토고를 잡고 1승1무(승점4·골득실+2)로 G조 1위로 올라선 스위스와 결전을 펼쳐야 하는 태극전사들의 어깨에는 부

담감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게 사실.
태극전사들이 스위스를 이긴다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프랑스-토고전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짓지만 비기거나 지면 심각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
한국의 필승카드를 무엇일까. 19일 스위스-토고전을 현장에서 지켜본 최진환 스포츠간 해설위원은 스위스의 오른쪽 포백(4-



back)라인 뒷공간을 노리는 빠른 스루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위스는 경기 초반 토고 미드필더들의 빠른 땅볼 스루패스 연결에 번번이 오른쪽 뒷공간을 허용했다. 공격루트를 파악한 토고는 집요하게 스위스의 오른쪽 윙백 뒷쪽을 노리는 짧고 강한 땅볼 스루패스를 연결했다.
스위스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고려해 고공

패스를 자제한 토고는 최전방 공격수 에마뉘엘 아데바요르가 미드필드 진영까지 내려와서 측면과 중앙을 파고드는 모하메드 카데르에게 스루패스를 연결했다.
이용수 KBS 축구해설위원도 “미드필드 지역부터 강한 압박을 해줘야 한다”며 “스위스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빠른 패스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토고 및 프랑스전을 통해 태극전사들이 사용했던 최후방에서 올라오는 긴 고공패스를 삼가하고 조직력을 활용한 미드필더진의 짧은 패스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 떠오른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과 스피드를 최대한 활용해 스위스 수비진의 조직력을 흔드는 것도 필수적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주영·정경호·조원희... “나도 뛰고 싶다”

■ ‘벤치워머’ 7인 이번엔 나올까?

‘김두현, 김영광, 김용대, 박주영, 백지훈, 정경호, 조원희’
독일월드컵축구 최종엔트리에 들어있는 이들 7인의 공통점은 아직 한 번도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1, 2차전에서 선발 또는 교체투입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의 출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포지션을 보면 박주영과 정경호는 왼쪽 윙포워드이고 김두현과 백지훈은 미드필더, 조원희는 오른쪽 풀백, 김용대와 김영광은 골키퍼다.

서로 자리가 겹치는 박주영과 정경호는 1, 2차전에서 박지성이 왼쪽 윙포워드로 나서는 바람에 선발 기회를 놓쳤고 교체 멤버로도 안정환, 설기현이 중용되는 바람에 벤치만 지켜야 했다.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설 수도 있지만 설기현, 이천수가 버티고 있어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 이들은 스위스전에서 박지성이 다시 윙포워드로 출격하게 되면 선발 기회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후반 교체 투입을 노려볼 만하다

미드필더인 백지훈과 김두현도 선발 출격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원 압박이 스위스전 승리의 열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한 김남일과 이윤용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2차전에서 이호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조원희도 불투명하다. 일단 경험 많은 송종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2차전 때처럼 왼쪽 풀백 이영표가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것은 후보 골키퍼인 김용대와



태극전사 박주영(왼쪽)과 조원희가 공을 차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며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광, 프랑스전에서 신랄한 선방으로 한국을 구한 주전 수문장 이문재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들 가운데 1979년 생인 김용대가 27

세로 가장 나이가 많은 데다 백지훈과 박주영은 아직 21세 밖에 되지 않는 등 모두가 4년 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도 충분히 뛸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00% 천연실크가 피부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100% 실크 아웃웨어
부드럽고 우아한 광택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100% 실크 이너웨어
뛰어난 흡수성과 통기성이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켜줍니다

실크 3색 나트피라미드 # 110-12
₩ 1,950,000
실크 비자엔트레 # 111-13
₩ 1,150,000

실크 4-색 나트피라미드 # 121-15
₩ 1,280,000
실크 비자엔트레 # 121-16
₩ 1,110,000

실크 2색 나트피라미드 # 223-18
₩ 3,300,000

실크 3색 나트피라미드 # 223-17
₩ 1,700,000
실크 비자엔트레 # 122-17
₩ 2,500,000

실크는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주문전화 02-512-8978

www.jasmisilk.co.kr / www.silkjasmil.co.kr

• 매장에는 실크 제품 외에 다양한 컬러와 패턴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으니 직접 읽어 보시고 실크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Jasmi SILK (주) 자스미실크

100% 천연실크는 피부에 가장 좋은 천연 섬유 소재이며, 실크 특유의 부드러움과 견고성이 온 몸사냥 후에 차갑고 건조한 피부에 좋습니다.

100-10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85-18 자스미빌딩 1F
☎ 02-512-8978